

초조대장경 1000년 기념사업 준비 한창

고려대장경연구소, 대구시와 초조대장경 발간 협약

2011년,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을 기념해 초조대장경이 복원 발간되는 등 대구시와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종 기념사업 준비가 한창이다.



초조대장경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2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와 초조대장경 천년 기념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대구시와 고려대장경연구소, 대구 동화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일 공동출간위원회를 구성해 초조대장경을 복원 출간하고, 동화사 일대에 승사(僧市) 등을 재연키로 합의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2년(1011) 거란의 침략을 부처님 위신력으로 물리치고자 간행돼 동화사 말사인 팔공산 부인사에 소장됐다가 고려 고종 19년(1232) 침입한 몽골에 의해 불타 소실됐다. 현재 초조대장경 목판과 완질 인쇄본은 존재하지 않고 일본 교토 남산사 등 국내 외에 200여 권의 인쇄본만이 소장돼 있다.

대구시는 고려대장경연구소 등과

함께 최근 고려대장경연구소가 남산사 소장 초조대장경 1800여 권을 디지털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조대장경을 복원 발간할 계획이다.

대장경 천년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번 초조대장경 복원 발간 프로젝트에는 5년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시는 대구 동화사 등과 9월 경 팔공산 부인사에서 사찰 특산물 장터인 승시를 재연할 예정이다. 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옮기는 아운 행사를 비롯해 동화사와 부인사를 잇는 순례길 걷기, 한·중·일 문화교류 워크숍, 대학생들의 청년 평화대행진, 대장경 체험 템플스테이 등도 함께 개최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위원장 김태호·경남도지사)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과 김범일 대구시장,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 스님이 MOU 체결 후 초조대장경을 살펴보고 있다.

도 2월 19일 도정회의실에서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 등과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성공개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 각국과 네트워크를 갖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해 유네스코기록유산인 대장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마련됐다. 선각 스님과 김태호 도지사, 전택

수 사무총장, 심의도 합천군수 등은 협약서에서 대장경과 해인사가 국민들과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장경관 해외전시와 홍보 등을 위해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5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태지역 자문회의'를 경남 지역에서 개최키로 약속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태지역 자문회의는 5월 21~2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유네스코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장·차관급 대표단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태호 도지사는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태지역 자문회의의 경남 개최가 세계인과 함께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대규모 불교행사 통합·조정

제주불교연합회 정기총회

제주 불교계가 제주 지역 대규모 불교행사는 제주불교연합회 주관으로 열기로 결정했다. 그 첫 번째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행되는 봉축대법회 및 제등행렬은 '제주도민의 화합을 위한 연등축제'로 명칭 변경된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원종·관음사 주지)는 2월 5일 관음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원종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제주교구 총무원장 법담 스님, 법화종 제주교구 총무원장 관효 스님, 원효종 제주교구 총무원장 강설 스님, 일봉선교종 제주교구 총무원장 영수 스님, 천태종 문강사·해운사 주지 설래 스님, 제주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동제 스님 등 제주불교연합회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불교연합회 임원 스님들은 이날 총회에 상정된 2009년 예산결산보고, 2010년 사업계획, 불기2554년 연합봉축위 실무진 구성 등을 처리했다.

또, 제주불교연합회는 대규모 불교행사의 사전조율을 통해 중복 개최를 막고 종파를 초월한 동참을 유도키로 하고 월별 행사 등을 통합·조정했다.

다음은 정기총회에서 개최 합의된 행사와 행사 주체이다.

- △3월=바자회(제주 비구니회)
- △4월=4·3원훈 천도제 및 위령제(조계종)/ 용산당 김대현 대종사 열반 10주년 기념집 불경 법회/ 산방산 보문사 청동약사여래불 봉불 및 산사음악회(원효종)
- △5월=석가모니불 탁발수행 재현법회/ 원효성사 열반대재(원효종)/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접등식·연등축제·봉축전야제·봉축연합창제(제주불교연합회)/ 작은 음악회 및 컵등 나눠주기(법화종)/ 경로잔치(일봉선교종)
- △6월=초전법륜기념 포교대상시상식(원효종)/ 일봉 서경보 스님 14주기 추모법회(일봉선교종)
- △7월=안봉려관 스님 다례재(조계종) △8월=산사음악회(조계종)/ 작은음악회 및 연주회(법화종)
- △10월=한라산 영산대제 및 세계평화기원법회(조계종)/ 제주교구 각 사암 가족 불명 갖기 수계대법회(원효종)/ 문강사 창립법회(천태종)/ 천봉기의 밤(법화종) △미정=태고종 제6회 연등문화축제(태고종)

조동섭 기자

중국 쓰촨성서 반중 시위

티베트인 400여 명, 경찰과 대치



2008년 3월 라싸 사태 당시의 모습(현대불교 자료사진)

중국 쓰촨(四川) 성의 티베트인 거주지역에서 2월 15일 티베트인 400여 명이 반중(反中) 항의 시위를 펼쳐 다 경찰과 대치했다.

독일의 DPA통신은 티베트 독립을 옹호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phayul.com)를 인용해, "2월 15일 쓰촨(四川)성 아바주의 한 광장에 400여 티베트인 주민과 승려들이 모여 기도를 하면서 라싸 사태 희생자에 대한 추모 의식을 진행하다 출동한 경찰들과 대치했다"고 베이징발로 보도했다.

중국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티베트인들을 에워싼 가운데 티베트인들은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뜻으로 보릿가루를 하늘로 던졌다.

DPA통신은 이번 시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티베트인 자치주인 아바주에는 2008년 3월 라싸 사태 직후 동조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다. 티베트 망명정부 측은 당시 이곳에서 39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해 왔다.

조동섭 기자

오바마, 달라이 라마와 비공개 면담

중국 정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2월 18일 티베트의 정실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와의 면담을 강행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 후 할리우드 국립무장관과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날,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맵룸(Map Room)에서 달라이 라마와 1시간 넘게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의 중도적 접근법과 비폭력, 중국 정부와의 대화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며 "대통령은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종교·문화 등 정체성을 지키는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이번 면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인류 가치의 증진과 종교적 화합, 전세계 여성을 위한 지도자들의 역할, 티베트인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의



첫 만남은 백악관 측이 중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대통령 집무실인 오피스가 아닌 맵룸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또, 회동에 대한 설명도 구두 브리핑이 아닌 기브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로 대체했다.

지난 수십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미국 대통령들과 면담했던 달라이 라마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집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면담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달라이 라마의 특사인 로디 갈리는 AP통신과의 회견에서 "집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면

담이었으나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번 면담은 중국으로부터 탄압받는 티베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가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중국은 미국에 강한 불만과 함께 결연한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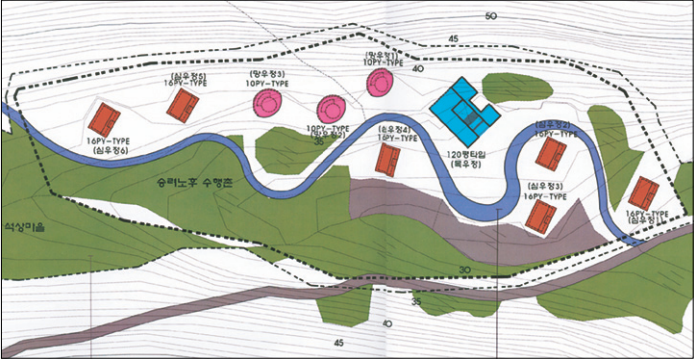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차례에 걸친 엄중한 항의의 뜻을 무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달라이 라마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강행했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 것은 국제사회의 기본원칙과 중·미 양국간 3대 공동성명 등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을 환영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9일 보도에서 "달라이 라마의 고향인 중국 칭하이(靑海)성의 티베트인들이 환영을 맞아 불꽃을 피우는 의식을 통해 달라이 라마와 오바마 대통령의 회동을 지지·축하했다"고 보도했다.

조동섭 기자

승려노후수행관 건립 탄력

선운사,공모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나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안태안·안성원씨의 '심우도를 따라 걷다'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지난 11월부터 공모한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공모전 수상작을 2월 12일 선정·발표했다.

스님들의 노후에 대비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발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모한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공모전에는 안태안·안성원(씨드아키텍건축사무소)이 제출한 '심우도를 따라 걷다'와 최동명의 '자연과 공존하는 마을'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한양대 오준형씨의 '최소한의 개발로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는 수행촌'이 뽑혔다.

선운사 이성수 총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스님들의 수행환경과 전통문화, 생태마을을 주제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노후수행관 건립사업은 공개입찰과 공모전 등에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 공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운사는 노후수행관 건립에 불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1만원 만등불사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이다. 특히 노후수행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유

지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벗'의 선물! 목욕이 아깝없이 즐기는~ 보리수 반신욕

온 식구가 평생 쓰는 반신욕! 산림욕!

물이 필요없이~ 아깝없이~ 즐기는 반신욕!! 전자파 NO! 원적외선 T.D.P 30여가지 광물질

절약! 한달 전기세 5,000원

보리수 반신욕 ₩2,530,000원 (보납가능)

※ 28년 이상 된 석상목·피톤치드 ※ *서비스: 황토욕+정토욕+숫토욕 2장

이런분께 권해드립니다

- 치질, 요실금 등 좌욕이 필요하신 분.
-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시는 분.
-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
- 젊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
-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은 직업.
- 노인 및 신체가 허약하신 분.

반신욕으로 건강한 생활하세요

4계절!! 사찰에서·거실에서 어디에서나~

설치·문의 02)418-1234 http://www.halfbath.kr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세요.